프랑스의 미들필더 지네딘 지단(왼쪽)과 포워드 다비드 트레제게, 프랑크 리베리가 연습구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스위스의 다니엘 기각스 하칸 야킨, 다비트 데겐, 알렉스 프라이와 마르코 슈트렐러(왼쪽부터)선수가 연습 도중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앙리 〈프랑스〉 **"G조 1위는 우리 몫"** 프라이 〈스위스〉

'공격력 對 조직력' 물러설 수 없는 한판대결

유럽 예선에서 두차례 비겨 승부 예측 불허

프랑스와 스위스는 14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슈투트가르트 고트리브-다임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승자는 16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물론 조 1위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막강 화력을 보유한 프랑스와 촘촘한 그물망같은 조직력을 자랑하는 스위스 맞대결 결과는 G조 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아드보카트호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프랑스 8위, 스위스는 35위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의미가 없다.

FIFA 랭킹만 보면 승부는 이미 프랑스 쪽으로 기운 듯 하지만 프랑스는 역대 스위스와 맞대결에서 35전 15승8무12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월드컵 유럽 지역예선에서는 한 조(4조)에 함께 속해 두 차례 맞붙었는데 0-0,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이번이 첫 대면이다.

1998년 우승, 2002년 조별리그 탈락 등 최근 두 차례 월드컵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프랑스는 간판 골잡이 티에리 앙리(29.아스날)를 내세워 '아트사커'의 부활을 알리려 한다. 2003-2004 시즌 30골, 2004-2005 시즌 25골, 그리고 2005-2006 시즌에도 27골을 터트리며 3년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앙리는 프랑스 대표팀의 간판 골잡이다. A매치에서도 78경기에 출전해 33골을 몰아 넣었지만 최근 대표팀에서는 이렇다할 활약을 해주지 못해 이번 월드컵을 명예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반면 '알프스 전사들' 스위스에서는 알렉산더 프라이(27·스타드 렌)가 프랑스 골문을 겨누고 있다. 부상을 털어내고 대표팀에 합류한 프라이는 독일 월드컵 유럽예선 10경기에서 팀 내 최다인 7골을 터트렸고, A매치 45경기에서 25골을 넣은 스위스 공격의 핵이다.

2003-2004 시즌 프랑스 리그 28경기에서 20골을 터뜨려 득점 2위에 올랐고, 2004-2005 시즌에는 36경기에서 20골을 폭발시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지브릴 시세, 스위스는 요한 폰란텐 등 주전 공격수가 최근 부상으로 최종엔트리에서 빠져 앙리와 프라이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스위스는 장신 스트라이커 마르코 슈트렐러마저 무릎 부상으로 이날 경기에 출전이 힘들 것으로 보여 프라이에게 거는 기대는 더 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전사여 6월 무더위를 넘어라"

오늘 토고전 오후 3시 32도 예상

'낮 최고 기온 32℃·습도 33%·맑음'

아드보카트호 태극전사들이 토고와 운명의 결전을 벌일 13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의 기상 예보다. 경기는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다. 한낮에 따갑게 내리쬐는 6월의 태양이 기승을 부릴 때다.

프랑크푸르트는 12일 낮 최고 기온 28℃를 기록했지만 13일에는 수온주가 무려 4도나 더 올라간다. 6월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겠지만 풍속이 강한 편은 아니다. 습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토고전 다음 날인 14일부터는 프랑크푸르트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26℃까지 떨어진다.

아드보카트호로서는 하필 가장 더운 날을 골라 결전을 치르면서 무더위와 또 다른 싸움을 벌이게 됐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잉글랜드와 파라과이가 낮 경기를 벌였는데 더위 때문에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더위를 감안해야만 한다. 압박 플레이를 하더라도 90분 내내 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데이비드 베컴(레알 마드리드)은 지난 10일 파라과이와 B조 첫 경기에서 1-0으로 힘겹게 이긴 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잉글랜드-파라과이전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지만 30℃를 넘지는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토고 수비·조직력 약하다

협력 안되고 공격수 잘 놓쳐

아데바요르 "한국전 어렵다"

아드보카트호가 독일 월드컵 첫 승 제물로 삼고 있는 토고 축구대표팀은 올 초부터 계속된 어수선한 팀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력을 드러낸 적이 없다.

올 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채 3전 전패의 수모를 당했던 토고는 지난달 중순 오토 피스터 감독의 지휘 하에 소집 훈련을 시작한 뒤로 점점 짧은 패스 연결 등이 살아나며 월드컵 지역예선 때의 모습을 찾아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덜 다듬어져 허점은 많다.

특히 토고의 가장 큰 '구멍'은 수비 라인의 호흡이다. 토고는 왼쪽부터 뤼도비크 아세모아사, 다르 니봄베, 장 폴 아발로, 마사메소 창가이를 배치한 포백 수비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수비를 맡는 196㎝의 장신 니봄베와 A매치 65경기에 출장한 주장 아발로(177㎝)는 스피드가 좋은 편이 아니다. 좌우 윙백들의 공격 가담도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들은 몇 차례 평가전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 수적으로는 우위를 점하면서도 협력 수비가 안 돼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어수선한 팀 분위기도 토고의 조직력 완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런 점에서 아드보카트호로선 무엇보다 초반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 일단 경기를 지배하면서 선제골을 경기 초반 이른 시간에 터트린다면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펼치며 대량 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고 축구대표팀 장신 스트라이커 에마뉘엘 아데바요르(22·아스날)가 "한국전이 토고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데바요르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토고 축구 전문매체인 '몽디알토고'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1차전 상대가 월드컵 4강 진출 전력이 있는 '강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면서 "토고의 전력은 경기시작 휘슬이 울리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내 분위기에 대해 아데바요르는 "독일에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몇몇 선수들은 우리가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이 곳에 왔다는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눈치였다"고 전했다.

토고 "셰퍼 감독과 계속 협상중"

빈프리트 셰퍼(56) 전 카메룬 축구대표팀 감독의 토고 사령탑 선임이 미뤄졌다. 셰퍼 감독은 토고축구협회에 자신의 요구 조건을 전달했고, 이제 공은 토고로 넘어갔다.

메산 아톨루 토고축구협회 대변인은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토고 대표팀의 훈련 캠프가 마련된 독일 방겐의 국제축구연맹(FIFA)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셰퍼 감독이 협상을 마치고 돌아갔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독일 월드컵 개막일에 사임한 오토 피스터 감독에 이어 토고 대표팀 신임 감독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셰퍼 감독은 11일 오후 토고 대표팀 숙소인 방겐 발터스뷜 호텔에 도착, 토고축구협회 관계자와 4시간 가까이 협상을 했다.

아톨후 대변인은 "셰퍼 감독이 아프리카 축구에 대한 경험이 많아 우선 접촉했다"면서 "우리는 셰퍼 감독이 원하는 것을 들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계속된다. 우리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코조비마웨나 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치를 한국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셰퍼 감독이 관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우부동산랜드
☎(代)671-0923 핸 011-607-2213
(전월동 대성여고입구 동성고후문사이)

상업지역 130평 급매
·월산동 40M 도로접 단층주택(직사각형) 평당600만원 35M×40M도로부근

소태동 G/B 전,임야 6850평매도
·2차순환도로 T/G부근(전1600평 건축물1동)부자, 기도원적합 평당2만5천원

장성 북하 산성리 임야 6570평
·가족묘지적합 포장도로접 평당13000원

나주 용산동 생녹지 587평
·외국어고앞 (담)생산녹지농로접 평당 8만5천원

전원주말농장 및 투자용 밭 관리지역
·화순 도곡 원화리 285평 평당 27만원
·화순 도곡 원화리 455평 평당 29만원

보전녹지 2천평 매도
·진월동(금당산, 진월초등, 태현사옆)보전녹지임야 2천평 평당60만원

주말농장 및 묘지용 410평
·화순읍 세랑리(칠구터널부근) G/B밭(남향, 개곡) 평당12만원

진월동 2층상가 280매도
·50M도로접(부:280, 건150평)층3억 임대 7억포함 매도가 13억3천만원

남구 대촌G/B 임야20000평
·도금동(칠석부근) 외곽계획도접 평당 2만 3천원

진월동 15×10도코너 3층상가
·1층상가 2,3층주택 대40 건52평 매도가 1억7천5백만원

장성 개간밭 4270평 매도
·황룡 필암리(필암서원부근 증산마을 입구) 개간밭 평당2만8천원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한글주소: 정우부동산 을 클릭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
☎(代)862-7100 (핸)010-4325-1323
(신창지구 신가중학교 옆)

장성지역
▶공장부지,물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접
◉대지-약3000평
◉건물1-철골조 2층 437평
◉건물2-철골조 248평
매매가-12억(절충가능)

*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 구함.

매곡부동산
☎(代)576-5000
핸 010-5701-8500

매 매
북구 최대규모
사우나(찜질방)

지하 1층
지상 6층건물
• 면적:623평, 건평1500평
• 거래예정금액 (상담후결정)(융자있음)
• 임대차보증금:4억7천5백
• 월임대료:6백4십만원
• 사우나, 찜질방, 독서실, 헬스장, 주인직접직영

땅 매매
• 용봉동 쌍용분양권 42평형, 48평형 아파트 구합
• 회순 동면 국동리 아산 45,000평 평당 9,000원, 돌산대리석, 참나무, 버섯재배 적합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핸 010-9455-2200 ☎ 674-1500

광주 남구 대촌동 사거리 주변 땅 다량확보
·지석동, 칠석동, 압촌동, 석정동, 화정동, 대지등 전화상담환영

남구 양과동 주택및 창고 매매
·대지 150평 공장 70평 주택 30평 시내버스 노선접 매매가 1억8천만원

남구 양과동 전원주택지 매매
·대지 300평 그린벨트 100평 승용차 진입가능 평당가 40만원 전원주택 별장부지

남구 양과동 주택 매매
·대지 220평 주택 리모델링 하였을 승용차 진입가능 평당가 85만원

남구 칠석동 답 매매
·700평 농로접 평당가 13만원

남구 암촌동 주거지역 매매
·1200평 당 65만원 도로접 주택 별장부지

아름다운부동산
☎(代) 062-956-8945
핸 010-3162-4989

상가건물
• 전대 후문 앞 25m도로변 대지75평 건물130평(지하1층 지상3층) 보증금9천만원 월세860만원 매매가 14억3천만원
• 광산구 월곡동 부영아파트 앞30m도로변 상업지역 대지 53평 건물30평 보증금 1억7천만원 월세 230만원 매매가 6억7천만원

투자 및 임대용지
• 광산구 운남동 주공2,3차 아파트앞 대지890평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530만원 매매가 평당 150만원

모텔매매
• 삼무지구 객실 40개 보증금 3억5천만원 월세 1,100만원 매매가 21억5천만원

병원부지
• 상무지구150평 200평 신창지구 120평 150평 하남2지구 24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원주택용지
• 광산구 지산동(본양 소계지안근)대지 240평 건물20평 매매가 8천5백만원

묘 지
•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임야 500평 매매가 평당 15만원

신축건물 임대
• 광산구 신창동 신창초등교와 진흥고사이 5층 신축건물 층당50평 (1층 식당 2~5층 학원적합)

럭키공인중개사
☎ (代)061)834-0114
061)745-6300

여수지역
▶여수 산단 입구 소액투자다량
▶화양지구에서 고흥 연륙교(섬) 펜션부지 전망 좋은땅 다량확보
▶나리도 77번 국도변(바다절경) 가든부지 약4,000평 평당 8만원
* 여수·순천·고흥 지역 소액투자 경제성 좋은땅 다량확보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무등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능협맞은편 2층)

건 물
◉4억 호화주택
대지230평 건평60평 올식천 유아원 적합
◉4억3천 원룸 매매
서동 대120평 건평200 보3,000만원 월360만원
◉전대후문 5억9천 상가 급매
전40평 건평140 30m×6m 코너 상단후 가격조정
◉7억9천 말바우 상가 매매
20×8m코너 보1억8천 월500만원
◉용봉동 10억 고시원 급매
대100평 건200평 룸70개 월세1,500만원 수익있음
◉13억9천 빌딩 20×10m 코너
전대 후문 대110평 건330평 보3억3천 월900만
◉17억1층 점포 12칸 빌딩부지
보증금 10억원 월50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2억 상업지역 빌딩
대150평 건600평 보증금4억5천 월세1,400만원 포함
◉33억 상업지역 빌딩
대176 건640평 보증금3억 월세2,600만원
◉49억 빌딩
보증금 17억 월세2,700만원
◉65억 상업지역 빌딩
대570 건1,650평
◉125억 빌딩 급매
대675평 건6,000평

주유소 전문중개
◉시내 8억주유소 급매
대280 건평 약50평 보5천 월440만원포함
◉10억 주유소
평1,200평 가든포함
◉11억5천 시외 주유소
기사식당 카센타 포함 2000평 장사잘됨
◉13억 시외 주유소 급매
대2200평 입매층 800만~900만원
◉17억 시외 주유소
대1,800평 휴게소 포함 건200평 하루 대출 1,200만원~1,3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550평 평당 650만원
◉360평 평당 850만원
◉140평 평당 900만원
◉270평 평당650만원 APT 7000세대 상권
◉9억 전원카페 대700 건160 교환가능

매매교환
◉8억9천 목욕탕 교환 매매
대136평 건370평 1층 점포5칸 주인직영

땅
◉청옥동 임자부지 1만평
주택20평 포함 매 1억7,000만원
◉문흥동 자연녹지 850평
평당 120만원 30m 도로접
◉광산구 생산녹지 4,000평
평당 59만원 2차선 진입로
◉광산구 자연녹지 2300평
평당 160만 점포 약 20칸 건물있음
◉창고부지 200평
각화동 평당 145만원
◉곡성 섬진강변 5000평
별장, 연수원부지 관리지역 평당 7만원
◉장성 55,000×2만원
◉담양 임야
15만평 평당 1만원
◉고창 선운사 부근 10만평
평당 15,000원 교환가능 밭 2만평포함
◉순창 임야10만평 평당5만원
◉화순 12만평 임야 평당8000원
◉곡성 농장 2만평 6억5천
◉관리지역 임야 7000평
남향 평당20만7천원 진입로 있음 경사도 15°
◉공시지가 보다 싼땅 오피스텔 부지
오치 170평 평당 145만원 공시지가 평당66만원
◉오피스텔부지 300평
평당190만원 전대후문에서 6~7분 도보
◉각화동 자동차공업사 부지 500평
평당 160만원 상업지역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평 남향 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삼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평당4만원
◉23억 종교시설 연수원 실버타운부지
12만평 건물 500평, 해남 50만평
◉자연녹지 3000평 급매
35m도로접 차고지 확보가능 평당 적합 평당20만원
◉북구 상업지역
500평 평당290만원 구획정리 완료

창고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대1000평 창고15동 포함 7억5천 보3500만 월세450만

A3000세대 정문 점포주택
대65 건53 1층 점포4칸 보1억 월130만원 매매 3억8천(2층 주인거주 가능)

동화마을(신도시건설)
☎061)833-6669 핸 010-8004-6669
(무주센타 고흥 군민회관앞)

개인 섬
금일읍 마을앞 작은섬 (약6,000천평)
• 농·목장, 전원별장지 최적 평당 5만원(상가나 주택과 교환도 가능)

고흥 유자밭
• 관리지역 임야 1만평 현재 1년에 약 1억수확 평당 2만5천원

풍유해수욕장/전원주택/음식점 최적
• 관리지역 논 700평 해수욕장과 인접한 아름다운 곳/평당 7만원

우주센터 고흥시내권
• 관리지역 전 900평 동남향, 모텔, 도심속에 전원주택지 최적, 하이얏트모텔(옆) 주변싯가 평당 2백50만원 급매가 평당 12만원

* 여직원 급모집 *
·숙식제공 40대이상도가능 부동산관심과 의욕적인분 2명(최고대우)